

원소 - 내향매화 기질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내향매화

원소는 십상시의 난을 평정했다. 원소는 하진이 십상시의 계략에 빠져 죽음을 당하게 되자 4대부 양반 출신인 원소는 십상시를 싹 쓸어버리게 된다.

정원을 죽이고 여포를 휘하에 거느리게 된 동탁은 천자를 패하고 진류왕을 새 천자로 옹위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른 대신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원소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원소는 동탁 밑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귀주 땅으로 떠났다.



안정지향적인 내향매화

낙양성을 불로 태우고 도망하는 동탁을 추격하자고 적극적인 조조와 군사들이 지쳐있으니 휴식하자는 현실주의자 원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탁이 장안에서 힘을 길러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지금 추격해야한다는 조조와 안정적인 군사 작전을 원하는 원소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었다. 결국 조조는 원소를 떠나 자신만의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추격한다. 하지만 실패한다.

이각과 곽사로부터 도망친 천자는 낙양성에 도착하지만, 폐허가 된 낙양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때 지방제후들에게 칙사를 보내어 자신을 호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원소에게는 저수라는 참모가 있었다. 저수는 원소에게 지금이야 말로 천자폐하를 보위하여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력하게 천자를 보위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안정을 중요시하는 원소는 현재 거주하는 하북 땅이 물자가 풍부하고 군비도 넉넉한데 구지 천자를 보위하여 많은 제후들의 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

하여 저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천자에게 가지 않는다. 반면 조조는 제장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기탄없는 회의가 진행되었고 참모 순욱은 천자를 보위하여 이상을 펼칠 때임을 강력하게 조언하였다. 조조 역시 순욱의 의견에 동의하여 천자를 보위하러 가게 된다. 조조는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노치지 않는다.

원소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모험을 좋아하지 않았다. 유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도와주는 것을 꺼렸다. 괜히 다른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지금이야 말로 조조와 싸워야 할 시점임을 강력히 설득하자 귀가 약했던 원소는 조조와 전쟁을 하게 된다.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매향매화

원소는 조조와의 관도대전에서 패한다. 내향매화기질인 원소는 아웃복서 스타일로 수비 위주의 전술과 전략으로 장기전으로 끌고 갔고, 군량이 부족했던 조조는 싸움을 빨리 끝내야하는 형편이었다. 외향대나무 기질인 조조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원소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향매화기질인 원소의 기질적 단점 때문이었다. 원소에게는 허유라는 부하장수가 있었다. 허유는 조조와 동향친구였다. 순찰 중이던 허유는 허도에서 순욱이 조조에게 보내는 밀사를 잡아 편지를 확보했다. 편지에는 조조는 지금 식량이 없으며 조금만 참고 견디면 순욱이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조조에게 군량을 지원하기 위해 허도에는 병사들이 없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한 허유는 원소에게 보고하고 군사 5천만 주면 셋길로 빠져나가 허도를 함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심 많고 모험을 싫어하는 원소는 허도 치는 것을 감행하지 않는다. 결국 원소에게 실망한 허유는 원소를 떠나 조조에게 간다. 허유는 조조에게 70만 원소 장병들의 군량기지인 오소를 칠 것을 조언한다. 조조는 부하장수들이 만류하지만 이 일을 부하장수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원소 군으로 위장한 특공대를 진두지휘한다. 결국 조조는 원소의 군량기지 오소를 불태운다. 결국 원소는 조조에게 대패한다. 기회가 왔을 때 조조와 원소의 태도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인다. 모험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처리하려는 원소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적군을 아군으로 받아들이는 폭넓게 인재 등용과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하는 조조의 태도가 관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였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매향매화

원소의 참모들이 오소의 수비를 강화하고 술을 좋아하는 수비대장 순우경을 교체할 것을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변화를 싫어하는 원소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조에게 군량기지 오소가 급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소는 어떻게 해야할지 빨리 결정하지 못했다. 내향매화 기질인 원소는 결정할 때 심사숙고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조조가 없는 본진을 공격하자는 참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원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루다 아들 상호간

에 후계자 분쟁을 일으키고 만다.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